

호남 민주·TK 국힘 '1당 독점' 민심보다 당심... '풀뿌리' 위기

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
(1) 뽑을 사람이 없다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8회째를 맞고 있지만, 유독 과거와 달리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져서 열기가 쉽게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으로서 민주정치 발전의 핵심인데다, 지역민의 삶과 지역발전의 좌우한다든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회를 거듭할 수록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의 경우 과거에 비해 후보 경쟁률이 크게 떨어지고, 무투표 당선 사례가 속출하면서 지방선거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모두 431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은 1.91대1로 집계됐다.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의 2.28대1의 경쟁률보다 낮은 수치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 20개 지역 42개 선거구에서 분투표를 하지 않고도 45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민주당 강세 속에서 군소 정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경쟁률은 떨어지고,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무투표 당선은 전국적으로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방선거가 지역별 거대 정당의 나눠먹기로 전락하면서 풀뿌리

지역민의 삶 좌우하는 선거 정당 공천 허용으로 '잡음' 경선 끝나면 사실상 선거 끝 유권자 선택의 폭 좁아지고 후보 경쟁률 크게 떨어져 곳곳 무투표 당선 사례 속출

민주주의에 위기가 왔다는 '경고음'으로 해석된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이 허용되면서, 거대 정당들이 앞다퉈 광역·기초단체장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공천에 모두 개입하고 나서면서 위기를 키우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점 때문에 공천 과정에 온갖 잡음으로, 한시도 시끄럽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당원을 위한, 당원을 위한, 당원의 정당'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전, 사천, 전략공천, 단수공천, 금품 거대설 등 민주 절차를 무시하는 의혹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면서 공천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오랜 민주당 '독점 정치' 역학관계 속에서 나온 사람만 나오는 '회전문 선거'라는 지적과 함께 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공천의 경우 선거구 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짬짬이 공천' 의혹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

와 광역의원 후보의 경우 범죄 전과와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정당과 의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공천을 받은 반면, 일부 후보는 엄격하게 징계 등이 적용돼 경선 과정에 감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지역을 위해 일할 살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지역 연고도 없는 인사를 당원과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영입하는 가하면, 정당 활동이 전무하고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후보들을 이미지만 앞세워 내세우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어찌 보면 유권자들은 정당이 쏜 후보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정당이 좋은 후보를 내고 본선에서 정당 후보들끼리 경쟁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하는데, 광주·전남은 민주당의 후보 공천이 마무리되면 선거가 사실상 끝나는 풍도여서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선거가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이끌 지역 일꾼을 뽑는 축제의 장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유권자들의 참정권은 제한되고, 거대 정당의 '공천 축제'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의 선거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 정치구도 탓에 지방선거가 '민주당 경선'으로 국한된 것 같아 아쉽다"면서 "이번 선거 이후에도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나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손흥민, 천하제일 골잡이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22일(현지시간) 노리치의 캐로 로드에서 열린 노리치 시티와의 최종 38라운드 경기에서 팀의 5번째 골을 터뜨린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대 최고 프리미어리그서 23골 터뜨려 득점왕 올라 빅리그 아시아 축구 새 역사

손흥민(30·토트넘)이 아시아인 첫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으로 우뚝 섰다. <관련 기사 18편>

손흥민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노리치의 캐로 로드에서 열린 노리치 시티와 2021-2022시즌 EPL 최종 38라운드 선발 출전해 3-0으로 앞서던 후반 25분에 루카스 모라의 도움을 받아 추가골을 넣었다. 이어 후반 30분 '손흥민 존'인 페네티이크 왼쪽에서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또 한 번 골망을 흔들며 5-0을 만들었다.

시즌 득점을 23골로 늘린 손흥민은 올버햄프턴전에 교체 출전에 1골을 넣은 무함마드 살라(리버풀)와 EPL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EPL에서는 득점수가 같으면 출전 시간 등 다른 기록을 따지지 않고 해당 선수들이 공동 득점왕에 오른다. EPL에서 공동 득점왕이 나온 것은 이번이 5번째다.



'골든 부트'(득점왕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손흥민. /연합뉴스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수준이 높은 프로축구 리그인 EPL에서 아시아인 득점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잉글랜드를 비롯해 스페인, 독일, 이

탈리아, 프랑스 등 5대 빅리그로 범위를 넓혀도 아시아인이 득점왕에 오른 것은 손흥민이 최초다.

2017-2018시즌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에서 이란의 알리레자 자한바키시(현 페네르바르트-당시 AZ알카르)가 21골을 넣고 득점왕에 오른 바 있으나, 네덜란드 리그는 빅리그로 꼽히지는 않는다.

손흥민은 아시아·유럽 축구의 새 역사를 쓰고 동시에 '커리어 하이'를 찍으며 2021-2022시즌을 마쳤다.

EPL에서 23골 7도움을 올렸고,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UECL) 기록(1골 1도움)까지 더하면 공식전 24골 8도움을 기록했다. 리그 득점왕으로 보나 공식전 득점으로 보나 자신의 한 시즌 최다 득점이다.

손흥민의 2골로 5-0 승리를 매조지한 토트넘은 5위(승점 69·22승 3무 13패) 아스널의 추격을 승점 2차로 따돌리고 4위(승점 71·22승 5무 11패)를 수성. 4위 팀까지 주어지는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UCL) 본선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연합뉴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 '안미경중' 노선 폐기 수순

일본서 IPEF 출범 정상회의 윤 대통령 '책임 다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대해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것"이라면서 "한국도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경제·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협력체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날 도쿄에서 한미일을 포함해 13개국에 참여한 가운데 정상회의를 열고 IPEF 출범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13개국 정상

급 인사 중 5번째로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등을 나열하며 "글로벌 국가간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IPEF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런면서 "전 세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한국은 AI(인공지능),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IPEF가 개방성·포용성·투명성 원칙 하에 추진될 기대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IPEF 고위급 하

상회의에 참석하면서 한국 외교의 전략적 지향점이자 실용 중심 방향이었던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함께한다'는 뜻의 '안미경중' (安美經中) 노선 폐기 수순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IPEF 합류를 결정한 것은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범 형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국익을 도모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IPEF는 미 주도의 무역 질서를 설정하기 위한 협의체로, 한국의 참여는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전략에 공조한다는 외교적 함의를 갖고 있다. 당장 중국에서는 IPEF 출범에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의 IPEF 가입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세계와 더불어'라는 '안미경중' (安美經中)의 본격화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방부 "한미, 전략자산 전개 논의 채널 구축"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 추진

군 당국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속 조치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채널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관련 질문에 "한미 간에 공동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그리고 그 구축과 함께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

개 문제는 그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또 정례연습을 통해 전략자산 전개 연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할 채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신속하게 재개를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통합국방협의체(KIDD),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이 될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했다.

북한의 대륙탄도미사일(ICBM) 발

사 가능성에는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ICBM을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한 것으로 한미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정상화'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사드 기지 정상화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앞으로 빠른 시기 내에 하겠다"며 "일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사드 기지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외재 동상 앞에 왜 친일파 단죄비? ▶6면

전남 SOC - 여수·남해 해저터널 ▶11면

굿모닝 예향-남도 오디세이 '담양' ▶22면

문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광주은행 1107-021-399765
(예금주:북구청장후보신문인후원회)

더불어민주당 **1문인**

후원문의 T. 062-269-9857

개인 실명으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입금 후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해드려야 합니다.
062-269-9857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직업, 후원금액, 입금일, 정치자금영수증을 받을 이메일 또는 주소를 알려주세요.
개인 명의로만 후원이 가능하며 법인, 단체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교원, 외국인은 후원할 수 없습니다.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합니다.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15%~25% 소득공제 됩니다.

※ 이 광고는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것입니다.